



세계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닭의 품종은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종류가 많으나 이 가운데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품종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주요 품종들도 순종 자체로 이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정도로 대부분이 사용 목적에 따라 육종 개량된 상업적인 합성종, 즉 교잡종 형태로 농가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품종의 작출(作出) 및 개량에 사용되는 기초 닭은 품종이라기보다는 그 품종의 내종 또는 계통의 개념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닭은 보통 품종(品種), 내종(內種), 계통(系統)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품종(breed)이란 같은 종에 속하는 닭 가운데 형태적 또는 생리적 특징이 서로 비슷하고, 그 특징이 자손에게 안정적으로 유전되어 동일한 단위로 취급하는 것이 편리한 집단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레그혼, 코니시, 뉴햄프셔, 플리머스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닭의 품종은 성립된 원산지에 따라 동양종, 미국종 등으로 나누기도 하고, 이용 목적에 따라 난용종, 육용종, 난육겸용종, 애완용종 등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레그혼은 대표적인 난용종이고, 코니시는 육용종, 플리머스록과 로드아일랜드레드는 난육겸용종에 속합니다. 내종(variety)은 같은 품종 안에서 벋 모양이나 깃털 색과 같은 외형적 특징에 따라 다시 구분되는 집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레그혼 품종 안에는 단관백색 레그혼, 단관갈색 레그혼과 같은 내종이 있으며, 플리머스록 품종 안에는 횡반 플리머스록과 같은 내종이 있습니다. 즉, 품종이 큰 분류라면 내종은 그 안에서 외관상의 특징에 따라 나눈 보다 세부적인 구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통(strain)은 품종 또는 내종 가운데에서 특히 우수한 어떤 개체를 중심으로, 그 외모나 산란능력, 성장능력 등 육종학적으로 중요한 특징을 유전적으로 고정하기 위하여 혈통을 유지해 가는 집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계통은 단순히 생김새가 비슷한 집단이 아니라, 일정한 능력과 특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선발과 교배를 거쳐 만들어진 집단입니다. 예를 들어 백색레그혼의 F계통, K계통이나 재래닭의 R계통, Y계통 등과 같이 지명, 농장명, 개량자 이름, 또는 특정 이니셜을 붙여 구분하기도 합니다.

계통 내에서 더욱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는 소그룹을 가계(家系)로 세분하기도 하나, 닭 육종의 기초는 계통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보면 됩니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육종농장에서는 다양하고 많은 계통들을 유지하면서 능력 개량과 아울러 새로운 품종이나 상업용 실용계를 만드는 기초 집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통의 종류는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다양한 유전자원, 즉 미래의 개량과 보존을 위한 귀중한 자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